한국은행 부산본부·국제금융진흥원, 경제·금융 프론티어 발대

(부산=뉴스1) 조아서 기자 | 2024-06-28 17:35 송고

부산국제금융센터(BIFC)© News1 DB

한국은행 부산본부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8일 '2024 부산 경제·금융 프론티어(BEFF)'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한국은행 부산본부는 기존의 ECB(Economic Challenge-Busan) 프로그램의 지역인재 육성 기능을 크게 강화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BIFC 입주기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·개편했다.

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지역 대학생 30명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수료식까지 6개월간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에 참가한다.

이들은 프레젠테이션 강의, 통화정책 특강, 국내외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 그룹별 발제 및 토론 등에 참여해 금융·경제지식 및 발표·토론 역량을 키운다.

또 BIFC 금융실무교육, 공동 취업설명회 등 취업 관련 정보와 더불어 부산항만공사(BPA) 현장 견학 등 체험활동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등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.

우수 참가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, 전체 프로그램의 70% 이상을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및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.

한국은행 부산본부 관계자는 "앞으로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·체험 기회를 제공해 향후 동 프로그램이 부산의 대표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Copyright ⓒ 뉴스1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.